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탄력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선정...1~2개월 내 착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우선순위 강조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은 중장기 투자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계획 구체성, 사업 추진 시 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 단번에 선정되기 힘든 평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완도군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에 국가 차원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논리로 삼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민하게 대처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2달여 빠른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8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안도길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다”면서 “향후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비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은

기존의 수목원이 지니는 기능과 역할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거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초석을 인정받았다”면서 “어려운 첫 걸음을 뗀 만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더불어 산림청, 전남도와 협력하는 등 국·공유림 교환 절차 또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강진 산사태 피해지 복구 완료

질량면 등 14개소...국·도비 7억6천만원 투입

강진군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 피해지 14개소 복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집중호우 460mm가 쏟아져 강진군 칠량·대구·마량·도암면 등 총 14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강진군은 신속하게 피해지 조사를 완료하고 산림청·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국·도비를 포함해 7억 6,800만 원의 복구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 후 가우도와 생활권, 경작지 등 민가 피해지를 우선으로 복구했으며, 이어 질량면

주리 임도와 대구면 용운리의 피해지 복구공사를 완료했다. 또, 피해지 조사 후 추가 접수된 소규모 피해지인 강진·대구·신전 등 5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임창복 해양산림과장은 “매년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추가 사방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서해해경청은 최근 김종욱 청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부흥산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며 서·남해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임인년 새해를 시작했다. /서해해경청 제공

서해해경청 현충탑 새해 참배 서·남해 주권 수호 의지 다져

서해해경청은 최근 목포시 부흥산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며 서·남해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임인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날 참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종욱 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해양경찰관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부흥산 현충탑 위패 봉안소는 2008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고박경조 경위 등 순직 경찰관 8인을 비롯해 638인의 위패가 있다. 김종욱 청장은 “지난해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서·남해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하나로 뭉쳐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진도군 부군수에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이 지난 3일 취임했다. /진도군 제공

윤연화 진도부군수 취임...“지역 발전에 최선”

진도군 부군수에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이 지난 3일 취임했다. 윤연화 신임 부군수는 “국책사업과 투자유치 등 진도 장기 발전 프로젝트 추진, 인구 늘리기, 지역개발사업, 농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아 진도군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문화·관광·예술 진흥, 안전한 진도 건설, 따뜻하고 행복한 진도군만

들기에도 주력하겠다”며 “그동안 쌓아온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업을 물론 7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윤연화 부군수는 함평군 출신으로 목포대 대학원 지역발전정책학과를 졸업했으며, 함평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 고희사회정책과장, 세종연구소, 인구청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전통 행정 관료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강진 병영설성·도암뽕잎 막걸리, ‘웰빙 주류’ 각광

뒷맛 깔끔...젊은층 인기 고혈압·당뇨 등 효과도

강진군 병영주조장(대표 김견식), 도암주조장(대표 박병현)에서 생산한 막걸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웰빙 주류로 각광 받으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60년 전통의 병영주조장에서 빚은 병영설성 막걸리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61호인 김견식 명인의 손에서 빚어지는 막걸리로 전통적인 기법을 통해 한 들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수인산 아래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정정된 물을 원료로 해서 탄맛이 없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김견식 명인은 국내 최초로 막

걸리분야 유기농식품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 3대 주류포평회에서 연속 수상한 경력의 소유자다. 또한 도암주조장에서 빚은 뽕잎 막걸리는 뽕나무의 뽕잎을 건조 후 250~300도 온도에서 20분 볶는다.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8일간 발효시켜 종전의 탄탄한 맛을 배제해 맛이 시원하고 속취가 적은 게 특징이다. 뽕잎은 중풍 예

방과 고혈압, 항균, 당뇨 등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막걸리의 효소와 공황이 맞는 대표적 식품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정정 강진의 쌀과 물로 정성스레 빚어 맛을 내는 강진산 막걸리는 뒷맛이 깔끔해 젊은층에게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다”며 “강진산 막걸리가 지역 특산품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막걸리로서 문화 자체를 전파하는 전통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무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무안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첫째아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둘째아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이 기존 25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아이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인 경우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무안=박주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영암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운영

영암도서관은 오는 7일까지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영암도서관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104회차로 ‘마음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그림책을 통한 마음 나누기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독서 습관 형성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며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도서관 독서교실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운영되며, 참여하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무안군 산림조합, 승달장학금 2천만원 쾌척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 산림조합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재)무안군 승달장학회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무안군 산림조합은 지난해에도 승달 장학금 700만원과 코로나19 극복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사회복귀 공헌에도 힘써오고 있다. 박병석 조합장은 “지역민을 위한 뜻

깊은 일에 동참하고자 (재)승달장학회 기탁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미래를 펼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전달된 뜻 깊고 소중한 기탁금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상록회, 150만 원 상당 이불 기부

강진상록회는 최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150만 원 상당의 이불 20채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윤준식 강진상록회장은 “추운 겨울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기원하며 작은 힘을 보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와 추위로 인해 심신이 지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숙 강진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전달한 따뜻한 나눔이 지쳐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강진상록회는 봉사단체로 강진군 사랑의 집 짓기를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